

지금 이 시각

2024. 7 TIME NOW

스물다섯번째



X_ 그 곳에 가고싶다:
서울(徐菀)

마주_ 서른춘기 마주 #1

줄리_ 생애 처음으로 느낀 복통- 최고의 보약 흰죽

오종원_ 자전거를 타자 : 러닝과 등산(1)

이채연_ 영雌콩방

김희진_ 다시 여기에 같힌

Pighead Lab



9 773058 233003
ISSN 3058-2334



표지이미지 :

북악 스카이웨이 밑에 있는 다소 옛날 풍의 카페. 중년 부부가 운영하는 이곳에서 파는 홍시정과빙수와 팥빙수는 처음에 확 놀라웠다. 주문 후 나왔을 때에도 그릇이 조금 작은 것 같아, 그저 예쁘기만 한 빙수는 아닐까 의심도 없지 않았다. 그러나 한 입 먹금는 순간, 문득 옛스러움이 올라온다. 우유를 먹금은 듯한 담백한 맛이 너무 달지도 또 너무 화려하지도 않은 느낌이다. 홍시정과가 무엇인고 했더니 수정과의 향과 맛을 품고 있었다. 그런 맛을 좋아하는 나로서는 꽤나 만족스러웠다. 팥빙수 역시 약간의 꾸덕함을 안고 있는 초연의 그 맛. 어릴 적 시험 점수를 잘 받았을 때, 꽤나 고급진 빵집에서나 먹을 수 있었던 그런 맛이었다. 프렌차이즈 빙수도 물론 맛있기야 하지만, 한번씩 어떤 '향신료' 같은 맛에 피곤하다는 느낌 마저 들 때가 있다. 그런 입맛을 되살리는 그런 맛이었다.

그 곳에 가고싶다 : 서울(徐菀)



X

작가 & 전시기획자

서울은 대한민국 모두가 가고 싶어하는 돈의 높이다. 서울이 나에게 가르쳐준 것은 대도시의 삶이다. 20대 이후 직장 생활을 하면서 서울에 살 땐 그냥 내가 가고 싶은 음악 바와 여러 클럽 때문에 서울이 재미있게 다가왔다. 하지만 독일과 프랑스에서 10년 유학 생활을 마치고 돌아온 후에야 비로서 서울의 얼굴을 좀 더 깊이 이해할 수 있었다. 힘들어도 쿨한 척을 하면서 세계 여러 대도시를 사는 다양한 인종과 국적의 사람을 접하였기 때문일까? 내가 서울에 다시 왔을 때 파리의 옛 근대 도시의 분위기와 귀족주의 혹은 보헤미안 성향의 파리지앙[Parisien] 태도와 전혀 다르게 서울이 느껴졌다. 자세히 표현하자면 한국 특유의 근대 서민 문화를 엘리트로 포장한 그 ‘가식’을 꾸미지 않고 그대로 보여주는 것이 매우 신선하고 새로웠다. 그리고 다른 상해, 홍콩, 도쿄와 같은 아시아의 대도시 [Megalopolis] 분위기를 물씬 풍기며 모더니즘과 포스트모더니즘을 공유하는 것이 매력으로 다가왔다.

하지만 이 뒤에는 대부분 아시아 도시가 가진 부드러우며 강대국 출신 외국인에게 때론 너무도 관대하고 때론 자신도 팔 정도로 순수한 후기 식민지적 문화를 느꼈다.

내가 처음 서울에 왔을 때 7호선 신풍역 근처 옥탑방에 살았다. 보라매 공원과 신풍역이 가까웠고 강남의 회사에 출근을 위해 매번 대림역에서 7호선에서 2호선으로 갈아탔다. 당시 지하철은 매우 더러웠다. 퇴근 후 얼굴을 씻을 때마다 코 안이 검게 된 것을 종종 느꼈다. 당시 서울은 그닥 깨끗한 도시는 아니었다. 지금이야 매우 깨끗하고 정비가 잘 되고 공원도 많지만 2000년대 초반까지도 서울은 그저 공해가 많고 복잡한 도시였다. 오늘날의 “아이 서울 유 [I SEOUL U]” 같은 관광 마케팅이 없었다.

난 전 이명박 대통령이 만든 ‘하나로 카드’를 충전해서 출퇴근에 썼다. 이 하나로 카드는 우리나라 최초의 교통 카드로 현금을 사용하는 한국인에게 당시 매우 신선했다. 가난한 사회 초년생으로 하나로 카드를 충전하는 것은 행복한 일이 아니었다.

회사의 같은 부서 언니 중 한 명은 연희동에 살고 다른 한 명은 인천에서 출퇴근을 하였다. 언니들은 매우 친절했고 우리 모두 클럽에 가서 노는 것을 좋아해서 나중에 쉽게 친해졌다. 특히

인천 언니는 서울 사람들의 패션과 인천 사람들의 패션이 다르며 인천 사람과 서울 사람을 옷 차림으로 구별할 수 있다고 얘기했다. 그리고 1호선에 이상한 사람들에 대해 재미있게 얘기해 줬다. 당시는 지금보다 더 이상한 지하철 탑승객이 많았고 특히 잡상인과 사이비 종교, 기독교 신봉자의 연설 현장이 바로 이 지하철이었다. 오늘날까지도 “예수-천국”, “불신-지옥”은 서울역, 부산역 등 어디나 교통이 지나가는 곳에 있기에 놀랍지도 않지만 당시에는 정말 소위 “미친” 사람들이 지하철을 자유로이 활보하고 다녔다.

나의 첫 서울집은 옥탑방이었다. 겨울에 입사하고 매우 추워서 회사 잠방에서 종종 잠을 자며 집을 거이 안들어가고 있었다. 회사는 외국 애니메이션 제작사로 역삼역 근처 금융 감독원 빌딩과 지금은 ‘강남파이낸스 센터(GFC)’로 바뀌었지만 당시에는 ‘스타타워(Star tower)’라고 불리는 큰 빌딩 사이로 사거리를 따라 내려가면 대치동 한 골목가에 자리했었다.

회사 부서 언니는 사장의 마누라가 전형적인 강남녀로 정나미가 떨어진다고 종종 얘기했다. 사장이 강남녀와 결혼해서 싫다는 투로 표현했을 때 난 처음으로 “강남녀”라는 단어를 들었었다. 당시 난 막내라서 모든 대화를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흘러내보냈다. 일단 목표는 자금을 마련하면 유학을 가는 것이고 회사 생활에 큰 관심이 없었다.

서울에서 나의 백만원 남짓 월급에 적금에 반 이상이 들어갔고 남은 돈은 홍대와 이태원 클럽에서 탕진하며 살았다. 레즈비언 모임에도 나가고 서울에서 만난 친구들과 홍대 클러빙(Clubbing)도 같이 하면서 주말에 서울의 밤거리를 누볐다. 이후 한국을 떠날 때까지 보증금을 내기 싫어서 이태원의 한 고시원에 이사를 했는데 매우 저렴했다. 고시원 지킴이 아저씨는 나에게 매우 친절했다. 고시원 건물 2층과 3층에 바가 있어서 심심하면 술을 마시러 가도 되었다. 참고로 이 고시원은 20년이 지난 오늘도 존재한다.

이 고시원을 생활하는 동안 난 이태원이라 그런지 한국인도 아닌 외국인도 아닌 그 경계를 사는 여러 여성들을 봤다. 한국 문화가 아닌 다른 문화에 살고 싶어하는 여성이나 한국의 주류에 끼지 않는 뭔가 단정할 수 없는 사람들의 모습을 볼 수 있었다. 당시 삼각지 미군 부대에서 일 하던 한국인과 비슷하다고 해야하나? 또한 이태원의 여러 트랜스 바와 게이 바처럼 ‘몸’에 대해서 사회가 금기시 하는 것을 넘어서는 사람들을 목격했다.

하루는 고시원 근처에 이집트 식당이 있어서 궁금해서 밥을 먹으러 갔다. 지금 생각하면 소위 ‘찐맛’의 이집트 식당은 아닌거 같지만 당시 난 어떤 문화에도 열려있었다. 나중에도 종종 밥 먹으러 갔었고 그래서 사장과 서로 얼굴을 트게 되었다. 하루는 이집트 사장이 나에게 자신의 경험을 얘기해줬다. 사장은 이집트 대사관에서도 일을 하면서 삼성 직원인 한국인 여성과 사귀게 되었고 서로 연인 관계에 있었지만 부모님의 강요로 이 여성은 다른 삼성 직원인 한국인 남성과 결혼하게 되었다고 했다. 딸은 특유의 한국 엘리트 여성이지만 자신의 사회적 굴레를 벗어날 수 없는 여성이었다. 난 당시 안타깝다는 느낌과 한국인의 인종차별적 태도도 느꼈다. 무엇보다도 그 사장님의 덤덤하게 ‘한국 사람은 늘 그렇지. 그녀의 부모는 오직 잘나가는 한국



사당역 3번과 4번 출구로 가는 계단에서 프랑스어로 '회귀'(Retour)라고 적힌 재킷을 입은 여성

인 사위만 원했어…’라는 말투가 가슴에 와 닿았다.

난 이 말의 깊은 의미를 수 년 뒤 내가 유학 생활하면서 느꼈고 다시 한국에 돌아와서도 공감했다.

서울의 다양한 사람들과의 만남 속에서 여러 친구를 만들며 살았지만 더 나은 도시를 찾고 싶었다. 회사에서 일로 만난 프랑스 아트 디렉터 스테판은 나의 여행에 지지를 해주며 여러 경험을 하고 예술을 하라고 조언을 주었다. 난 서울의 교통체증과 아파트를 짓고 부수는 끊임없는 공사를 뒤로하고 뭔가 미지의 원초적인 곳으로 가길 원했다. 한국의 떠나 어딘가 나의 유토피아적 공간을 찾고 싶었다. 내가 배운 소위 ‘한국적’ 것 이외의 다른 돌파구를 찾고 싶었다. 그래서 무작정 이태원 나이지리아 사람에게 아프리카의 상아해변(코트디브와르)으로 가는 비행기표를 샀다. 결국 이 표는 나를 독일과 프랑스로 바래다줬다.

이후 십여년이 지나 2014년 가을 한국에 돌아왔을 때 서울은 어땠을까?

돌아온 서울에는 좀 더 많은 다양한 국적과 출신의 외국인이 한국인처럼 살며 다양한 문화를 키우고 있었다. 그리고 지하철은 아주 깨끗해졌다! 아파트 재개발과 소음이 여전하지만 뭔가 여러 유럽 대도시와 비슷한 양상으로 서울이 달라져 가고 있었다. 하지만 무엇보다도 나의 서울을 보는 시각이 바뀌었다.

유럽에서 여러 근대 도시를 경험하고 나의 해석의 폭이 깊어졌다. 나는 파리, 런던, 바르셀로나, 프랑크푸르트, 베를린 등 여러 도시를 경험하며 도시화의 흐름을 이해할 수 있었다. 베를린의 큰 도로를 수도 없이 걷고 독일의 누벨바그 감독인 파스빈더[Rainer Werner Fassbinder]가 생각나는 알렉산더 광장을 여러 번 갔다. 파리에서도 늘 도시를 걸어다니며 18구에서 4구를 거쳐서 14구까지 북에서 남으로 여러 번 횡단했다.

난 유럽의 오래 된 근대 도시를 경험하며 좀 더 궁극적으로 대도시의 역사와 문화를 이해할 수 있었다. 그리고 이를 통해 서울의 얼굴을 좀 더 잘 파악하게 되었다. 또한 모든 도시 공간이 지닌 특성을 서울에서도 빠지지 않고 느꼈다. 도시 속의 공간적 차별, 자본과 권력 그러나 이 속에서도 문화와 예술은 자유로운 공간을 제공하는 것이 모든 도시 안의 양상이었다.

귀국후 여전히 나는 서울의 이태원, 한강진에 자주 갔고 클럽을 방문하였다. 하루는 ‘베뉴 [Venue]’라는 지하에 위치한 클럽에 친구들과 춤을 추었다. 이 클럽은 여러 음악을 틀어주는 정말 ‘짬뽕’이었다. 홍대에 90년대 생긴 ‘스카[Ska]’나 ‘명월관[MWG]’과 비슷하지만 규모가 매우 작은 것이 특징이었다. 그 곳 화장실에 붙인 스티커의 글귀는 나를 유토피아로 바래다쳤다.

스티커에는 ’댄스 음악으로 우리가 역사를 만드는 곳 / 베뉴’라고 적혀있었다. 기억이 역사를 만들고 그리고 결국에는 ‘장소’를 만드는 것이다. 난 이 글귀가 참 맘에 들었다. 역사로 발전되는 기억은 문화와 예술의 공간에서 오랫동안 탄생된다. 그리고 여기에는 자본에 의해 확장되는 대도시의 시공간과는 다른 또다른 시공간이 존재한다. 바로 난 이런 유토피아적 도시 공간을 끊임없이 찾았던 거 같다.



이태원의 사라진 클럽 ‘베뉴[Venue]’의 화장실 스티커. 콘서트의 ‘장소’처럼 음악이 흐르는 공간인 것이다.

몇 년전 직장으로 서울 강남 대치동에 한 10개월 미만 살았었다. 버스 한 번 타면 청담동이나 압구정에 가기 쉬워 전시 보러 자주 갔었다. 출근 할 때 자주 보는 버스 광고판에 이 구역의 패션을 주도하는 브랜드를 자주 목격할 수 있었고 쇼윈도우에 디자이너 옷을 자주 보았다. 대부분 외국 브랜드였다.

당시 내가 다니던 회사도 이 주변이었다. 회사 사람들은 땅값, 건물값 얘기를 끊임없이 하고 외국에서 뭔가를 가져와서 한국에서 돈을 벌려는 생각을 하였다. 요새 유행하는 예술품

경매, 투자, 청담에 팝업스토어 유치 등에 관심있는 어느 대도시를 가든 볼 수 있는 ‘기회주의자’들이었다. 하루는 나에게 사장이 강남에 빌딩을 살 것이라고 말했다. 나는 언젠가는 ‘별도 땀다고 하겠지..’라 생각했지만 다 나와는 연관이 없는 것이다. 강남에 목숨 건 사람들은 항상 기준을 강남에 맞출 것이다. 강남은 ‘역사’ 보다는 ‘순간’에 길들여진 공간이고 순수한 ‘자본’의 공간이다.

올해 봄에 페로탕에서 전시를 보고 나오며 이런 생각이 들었다. 도산 안창호는 자기를 위해 지어진 도산파크 옆에 세계 10대 갤러리가 나란히 들어선 것을 어떻게 생각할까? 송은 아트센터 빼고는 페로탕, 오페라, 화이트큐브, 메종 헤르메스, 그레으 구스까지 모두 외국 브랜드가 그의 공원 옆에 자리 잡았다. 안창호 선생은 독립 운동하다가 돌아가셨는데 옆에 이국 문화가 즐비하게 진을 치는 것을 보면 오늘날 한국의 부유해져 뿐만 하기도 하지만 한편으로는 씁쓸하게 생각할지도 모른다.

서울은 도쿄, 홍콩 상해와 다른 뭔가 애절하고 슬픈 기억을 가지고 있다. 어디가도 자부심 넘치는 것이 아닌 조용히 존재하는 뭔가 화려해도 화려할 수 없는 도시의 분위기를 자아낸다. 서울은 더 강한 외부의것이 들어오면 조용히 자리를 내준다. 그리고 언제든 자본으로 모든 것을 해결하려한다.

아마도 우리의 ‘소리’를 내는 좀 더 큰 용기가 필요한 거 같다. 문화와 예술을 주름잡는 파리, 뉴욕처럼 뻔뻔하게는 못하더라도 덜 계산적으로 나는 서울이 우리 고유의 문화와 예술을 지키고 만들어 가기를 바란다. 이제는 타인이 아닌 우리가 얘기할 때가 아닌가? 크던 작던 당신의 목소리는 중요하다. 왜 모두가 같은 소리를 내야한다고 교육을 하는지 이제는 남과 달라도 아무렇지 않지 않나? 앞으로 조금씩 서울의 목소리가 커지길 원한다. 그래서 애절하고 측은한 기억에서 독특하고 역동적인 서울의 기억을 가지고 싶다. 🐾

멕시코 지인이 산 티셔츠 ‘서울’ 2023년 대전의 설탄수박 바





서른춘기 마주 #1

마주(Maju)

뒤늦게 정체성 없음을 알게 된 서른춘기

1. 서른춘기 마주. 어떻게 살아야 할까.

대학원을 졸업했다. 이제 뭘 해야 할까?

대학 때도 그랬다. 졸업을 하니 뭘 해야 할 지 몰랐다.

작업실을 영위하기 위해 세 개의 알바를 구했다. 물론 집 월세도 감당해야 했다.

방과후교실, 키즈카페, 호프집.

평일엔 방과후 교실, 금토일 오전엔 키즈카페 오후엔 호프집.

주 4일.

3일의 휴일을 만들어놓은 이유는 작업을 하기 위해서였다.

작업실 30만 원, 옥탑방 월세 27만 원, 통신비 공과금 교통비 생활비 약 50만 원

한 달에 최소 나가는 금액이 100만 원을 웃도는데 알바비는 그것에 못 미칠 때가 많았다.

그 와중에도 쉬는 날에는 몸이 힘들어 자꾸 작업을 쉬는 날이 많았다.

그런데 전시는 어떻게 하는 거지? 어떻게 해야 유명해질 수 있지?

대학교 미워. 나는 아직 응애 얘기인데 왜 아무것도 알려주지 않고 나를 졸업시킨 거지?

대학원을 갔다.

의미 없는 시간들은 이미 몇 년이나 흐른 뒤였다.

대학원에 가니 조금 숨통이 트였다.

아 학생으로 존재할 수 있다는 것이 이렇게 기분이 좋은거였구나.

역시 돈이 좋다! (학자금 대출 2500만 원 추가요)

방향도 모르겠는 커다란 대서양 위에 홀딱 젖어 이리저리 부유하던 종이배같던 내가

갑자기 모터 달고 어딘가를 향해 막 달려가고 있었다.

가보자 출발해 보자! 멋진 세계가 기다리고 있을 거야!

나는 대서양을 바라보는 커다란 물음표야!

응 이제 너 나가세요~
서비스 마감시간이에요~
잠깐만요! 저 아직 배울게 많은데요?
대학원을 졸업했다. 이제 뭘 해야 할까?



2. 미술학원에 가서 돈을 벌어보자!

대학원 입학 직전 나는 반포의 모 예중 예고 미술 학원에 강사 겸 실장으로 일하고 있었다.
한 달 원비 150만 원, 방학 특강 500만 원을 일시불로 턱 턱.
카드 내미는 손은 자연스러운데 카드 긁는 내 손은 덜덜 떨린다.
나는 점심값이 아까워 도시락을 싸 다니는데 이 학원에 다니는 아이들은 매끼 만원이 훌쩍 넘는 음식을 먹는다.
지겨운 생활이었다. 수업을 하고, 카운터에 앉아 출석부를 정리하고 원비를 받고.
원생 한 명이 내는 돈보다 적은 내 월급을 아끼고 아껴 저금하면서.

아 반포에 자기 건물을 가지고 그 건물에 학원을 하는 원장은 이 정도 버는구나.
비현실적이었다.

대학원에 들어가면서 본격적으로 자금난에 시달렸다.
굳은 마음을 먹고 다시 들어간 학교였기 때문에 작업시간을 제대로 확보하고 싶었다.

2017년 한창 유행하던 ‘창의아동미술’ 학원에 이력서를 넣었고 면접을 보았다.

목동 노른자 동네에 위치한 그 학원에 오픈멤버로 들어갔다.

주 3일, 혹은 4일. 정말 열심히 일했다.

한 달 꼬박 일해도 100만 원도 못 받았지만 대학원 시절 나의 생계를 책임져주었기 때문에 어떠한 사명감을 가지고 열심히 키웠다.

처음 100명이 채 되지 않던 원생은 250명을 넘겼다.

점점 맡은 반이 많아지고, 방학 특강도 도맡았다.

거의 뼈를 갈았다.

그렇게 시간이 흐르고 나는 결국 그 학원의 왕고가 되었다.

월급도 꽤 올라 만족스럽게 다니던 중.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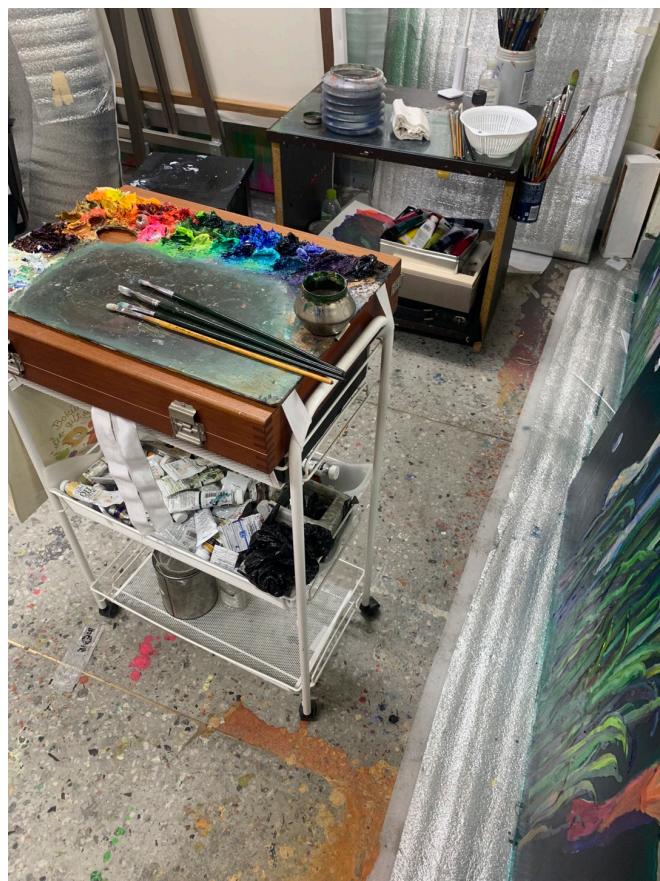
“민정쌤~ 쌤 대학원 졸업하면 전임으로 들어와요~”

그렇다 졸업을 앞두고 있었다.

원장은 내가 전임으로 들어오길 바라는 눈치였다.

“아니에용 선생님~ ~ 저는 졸업 후에도 주 3일 정도 일할 생각이에요~”

“파트타임 월급으로 어떻게 생활하려고 그래~ ~ 잘 생각해봐요~”





그때 문득 그런 생각이 들었다.

대학원을 졸업한다 - 그럼 난 학생이 아닌데 - 그럼 난 알바생인가? - 미술작가인가? - 백수면
서 일은 왜 3일만? - 뭐가 되겠다고? - 너 뭔데
자기혐오가 시작됐다.

3. 생활은 어떻게 하려고

그렇다. 원장의 워딩은 나를 자극했다.

파트타임 월급으로 어떻게 생활하려고 그래~

어떻게 생활하려고 그래~

생활하려고 그래~

생~~~~ 활~~~~

생활하기 위해 시간을 투자해 돈을 벌고, 그 돈으로 생활을 하고.

또 생활하기 위해 돈을 벌고, 그 돈으로 생활을 하고.

이거 돌려막기인것 같은데?

내가 진정으로 하고 싶었던 것은 작업이었고, 작업을 하기 위해 생활비를 벌었다.

그러나 생활비를 벌기 위해 소모되는 시간이 너무 컸다.

게다가 투자하는 시간에 비해 벌이는 너무 하찮고 귀여웠다.
이렇게 가다가는 이도 저도 아닌 알바생으로 남게 될 것이다.
전임이 되든 백수가 되든 뭔가 하나는 해야 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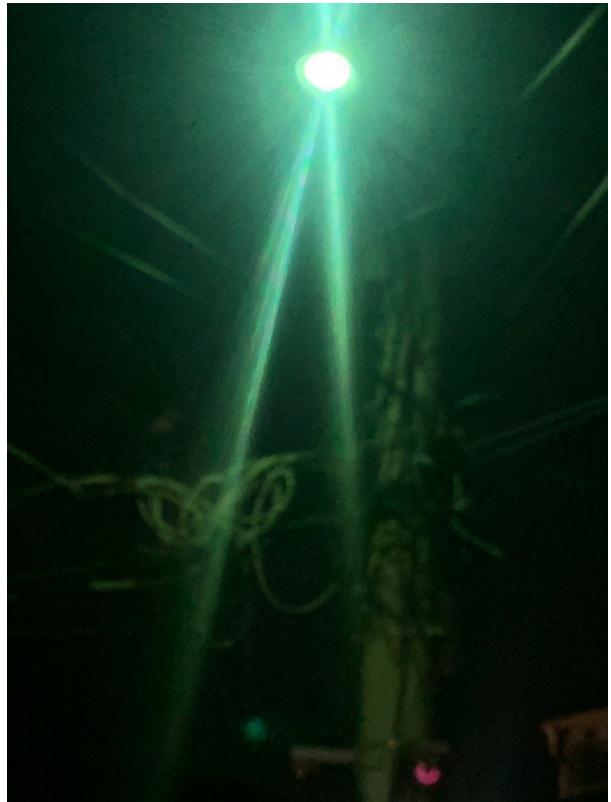
그제야 드디어 마침내 마주가 머리를 굴리기 시작했다.
자, 마주는 주 4일을 일하고 일터는 집에서 왕복 두 시간.
맡고 있는 반은 10개, 맡은 원생은 38명.
원비는 한 달에 20만 원.
그럼 마주가 이 학원에 매달 벌어다 주는 돈은 760만 원.

헉 소리가 났다.

그 당시 마주는 한 달에 꼴랑 백만 원 조금 넘는 돈을 받고 있었다.
250- 맥시멈 280명인 것을 감안했을 때, 학원이 벌어들이는 돈은 엄청났다.
물론 월세와 공과금, 직원월급, 재료비, 유지비, 세금 등 지출도 무시 못 하겠지만
반포학원에서 실장으로 일하며 학원의 세무 내역도 맡아 일했던 터라 어느 정도는 그 시스템
을 알고 있었다.

아 열심히 일하기 싫어졌다.
내가 일 한 만큼 내가 다 받고 싶단 말이야~~

그때부터 마주는 무언가를 결심하게 되는데. 🎩





생애 처음으로 느낀 복통- 최고의 보약 흰죽

줄 리

음식예술가

항암을 끝낸지 거의 일 년 여가 되어간다. 4번의 항암 치료와 복용 중인 호르몬제로 인해 내 몸이 급변하게 변할 거라고는 처음 시작할 때는 감히 상상도 못했다. 외향적으로 가장 크고 빠르게 찾아왔던 변화는 내 몸의 모든 털이 빠지고 난생처음 나의 민머리를 보게 된 점이었다. 태어난 이후로 한 번도 햇빛을 보지 못했던 나의 머리는 까무잡잡한 나의 피부에 비해 너무도 백옥이었고 내 뒤통수가 이렇게 이쁜지 처음 알았다.

얼굴은 달걀형은 아니었어도 머리 모양은 달걀형이었으니 잠시나마 나의 이쁜 민머리를 보고 만지고 이쁘다 이쁘다 쓰다듬은 적도 있었다. 항암을 받으니 이런(?) 선물도 받았네 하며 농담 아닌 농담을 친구와 나눈 적도 있었다. 하지만, 이런 외형적인 변화는 나의 삶의 질에 1프로도 영향을 주지 않았다. 사실 모든 머리가 빠졌을 때는 몇 날 며칠을 눈물로 지새우기도 했지만 지금 생각해 보니 사치였음을 서서히 느끼고 있다.

거의 1년여의 시간이 되어가면서 나의 예전 체력은 돌아오지 않고 조금만 무리해도 항암 전에는 한번도 겪어보지 않았던 혀가 갈라지고 혀바늘이 돋아 쓰리고 아프고 눈꺼풀이 너무 무거워 눈을 제대로 뜰 수조차 없어 그대로 침대에 눕는 일상이 다반사가 되어갔다. 민첩함에 끝을 달리던 내가 이제는 끌려가기에 바빠 허둥지둥 대는 모습을 보이기도 다반사이다. 며칠 전 일이다. 체력을 키우려고 며칠 사이 과식을 좀 했다. 속이 살짝 부담스러운 게 약간의 불편함이 조금씩 올라오기 시작하더니 갑자기 배가 찢어질듯한 복통이 시작되었다. 허리를 제대로 펼 수도 없고 배만 살짝 눌러도 어떤 고통을 자아내는 신음 소리 보다 더 큰소리가 나오고 식은 땀이 이마에는 송골송골 맺혔다. 장에 구멍이 났나 아니면 장이 꼬였나 오만가지 생각이 났다. 수중에 있는 소화제라는 소화제는 다 털어 넣었다. 그리고 배를 따뜻하게 마사지해 주고나니 그물에 걸린 물고기 마냥 내 뱃속이 요동치기 시작했다.

화장실로 급행 모든 것을 다 쏟아냈다. 속은 천천히 편해졌지만 여전히 스치고 지나간 흔적에 고통은 여전히 남아 있고 이를 동안 아무것도 먹지 않아도 배고픔을 느낄 수도 없었다. 서서히 속이 편해지니 슬슬 배고픔에 먹고 싶은 게 떠올랐다. 하얀 쌀밥에 건고추를 액젓에 불려 거칠

게 같아 내어 살짝 절군 배추에 버무려 낸 배추 곁절이 아니면 하얀 쌀밥에 텃밭에서 갓 때론 풋고추에 짭조름한 집 된장 푹 찍어 입안 가득 오물오물 먹고 싶더라 하지만 이럴 때 절대로 방심해서 아무 생각 없이 먹게 되면 나는 다시 고통의 나락으로 빠져들게 될 것이 분명했다. 서서히 온 뱃속을 뒤집어 놓은 고통을 달래주면서 배고픔을 잊어버릴 수 있고 거기에 구수한 맛까지 더해지는 최고의 음식 흰 죽이다.

보통은 불린 쌀을 살짝 믹서에 갈아 쌀 알갱이를 반으로 타작한 후 열을 가한 두꺼운 냄비에 참기름 한 방울을 두르고 불린 쌀을 먼저 참기름으로 코팅할 수 있게 볶아주다가 불린 쌀의 6 배의 물을 놓고 중강 불에서 끓이다 한소끔 끓어오르면 불을 줄이고 서서히 쌀알이 질 퍼질 때 까지 끓여주면 된다. 그리고 마지막에 깨소금이나 김가루를 고명으로 올려 내면 보통 즐겨 먹는 흰죽을 만들어 낼 수 있다. 하지만 나는 좀 더 구수하면서 좀 더 크런치 한 느낌의 흰죽을 선호한다. 약간은 손이 더 많이 가도 내 입맛에 딱 맞는 흰죽을 만들어 낼 수 있다.

먼저 쌀 반컵을 깨끗이 씻는데 세 번째 씻은 물로 쌀뜨물물을 2컵 정도 만들어둔다.

30분 이상 불린 쌀을 믹서에 휘리릭 거칠게 갈아 준비해둔다.

두꺼운 냄비에 열을 가한 후 불린 쌀을 넣고 물기가 없을 때까지 저어 주다가 살짝 냄비 바닥에 누를 정도로 볶아 주면서 쌀뜨물을 조금 부어 수분기를 준후 다시 바닥에 누를 정도로 볶아 주고 다시 수분기를 날리고 이런 과정을 4번 정도 거치다 보면 살짝 누룽지화 되면서 쌀뜨물을 머금은 쌀알들은 말갛게 변하고 좀 더 고소한 맛이 가미됨을 냄새로 눈으로 느낄 수가 있다. 마지막으로 나머지 물을 넣고 중약불에서 10분 정도 끓여 내면 녹말기 머금은 흰죽이 완성된다.

여기에는 간장도 깨도 김가루도 가미하지 않는다

오로지 흰 쌀알이 품은 고소함과 담백함 그리고 가끔 오독오독 씹히는 크런치함을 가지고 있는 세상 어디에도 없는 나만의 흰죽을 맛볼 수 있기 때문이다.

내 속이 허락된다면 아삭함의 최고를 달리는 약간 시어빠진 총각김치 한입 베어 물고 싶지만 절대로 절대로 내 속이 허락될 때까지는 금물이다.

김이 모락모락 나는 흰죽 한 숟가락 호호 불며 입안에 넣으니 고소한 내음으로 코끝을 자극하고 입안 가득 머금으니 금세 그 고통이 사라지는 듯했다. 뜨거운 죽 한 번 두 번 먹을 때마다 이마에 땀이 맺히고 고통으로 굽었던 허리도 펴지기 시작했다. 내 몸의 크고 작은 변화가 항암으로 인해 면역 체계가 약해지면서 일어나는 변화인지 아니면 나이 들어가면서 자연스러운 현상인지 의문이 들지만, 항암 전후로 나의 몸과 마음의 변화가 급변하니 자연스럽게 모든 원인은 항암으로 인한 것이 아닌지 확신 아닌 확신이 든다.

나보다 더 중증의 환우 분들은 다들 어떻게 극복해 나가고 있는지 존경심이 들면서도 무안한 응원의 박수를 보내고 싶다. 그들에 비하면 나의 이런 걱정과 변화들은 어린애 응석에 불과할 수도 있을 것 같다는 생각에 이런 투정 아닌 투정들이 사치가 아닐까 하는 생각도 든다.

흰죽 한 그릇 먹고 조금 지나니 온몸에 온기가 들면서 서서히 평온이 찾아온다
혼자 고군분투하고 있을 누군가에게 끊임없는 응원의 함성을 보내며 이 글을 마친다.
우리는 잘 해왔고 잘하고 있으며 잘할 수 있다. 🐾





자전거를 타자 : 러닝과 등산(1)

오종원

문화예술인력 / 피그헤드랩 운영

※ 러닝이라는 단어를 사용할 때 달리기라는 우리말과 어느 것을 써야 할까 고민을 하였다. 이 글을 쓰는 것은 근래에 유행하는 특정 스포츠를 소개하는 차원이 더 크고 그 와중에 미디어와 대중적 선호에서 러닝과 러너라는 단어가 많이 쓰여짐을 느끼며 그렇게 사용하고자 한다.

요즘 러닝이 엄청난 인기를 끌고 있다는 이야기를 들었다. 정확히 테니스와 러닝 양자 체계로 인기를 끈다고. 운동복과 러닝화를 신은 이들이 삼삼오오 열을 지어 달리는 것은, 내가 매일같이 다니는 곳에서는 그리 낯선 일은 아니었다. 그러던 2023년도 초부터, 한강을 달리다 보면 열명 스무 명이 달리는 광경을 자주 보게 되었다. 특히 한강에서 이열 종대로 수십 명이 달리는 모습은 군대 이후로 간만에 보는 풍경이라 처음에는 신기하였는데, 어느덧 라이딩을 하다 보면 보행로에 러너들로 가득 찬 것처럼 느껴지기도 하였다. 또 자전거 커뮤니티에 러너들이 자전거 도로를 침범하는 경우, 러너와 자전거 간의 충돌이야기가 간간이 올라오는 것을 보면 ‘정말 러닝이 인기인가 보구나’라고 느끼게 된다.

나의 경우, 누군가 내 운동 취미를 묻는다면 “자전거를 탑니다. 라이더입니다”라 답하기는 하겠지만, 그 와중에 러닝과 등산을 간간이 병행하는 편이다. 러닝의 경우에는 한 달에 두어 번, 많이 할 때는 주에 2회 이상 집 근처 중랑천에서 10km를 달리고는 한다. 근래에는 10km 경 도의 러닝 대회들을 참여하기도 하였다. 또 등산의 경우에는 작년까지 등산동호회에 가입하여 간간이 산을 탔었다. 집에서 멀지 않는 아차산, 용마산부터 관악산과 북악산 등을 다녀보았고 작년 가을에는 한라산까지 등반하기도 하였다. 둘 다 매니악한 상태까지 가지는 않았지만 또 대충 찍어 먹어서 맛은 느껴봤다고 생각한다.

잠깐 내가 이 세가지 운동을 택했던 이유를, 또 이 운동들이 인기를 끈 이유를 생각해본다. 사실 달리기(러닝)와 등산, 자전거 타기는 우리에게 너무나도 친숙한 운동이다. 앞서 말한 것처럼 근래 인기를 많이 끌고 있는 러닝은 그동안 크게 부각되지 않았던 스테디셀러 운동이기도 하였고, 등산 역시 대한민국 모든 국민의 운동이라고 할 수 있을 정도로 정통파인데다가, 바로 직전에 잠깐 등산 동호회 붐이 일어나기도 하였다. 자전거의 경우도 마찬가지이다. 내가 어릴 적에는 신문을 구독하면 자전거를 주었다고 할 정도로 자전거 자체는 상당히 대중적인 분야

였다. 그리고 무엇보다 이 세가지 운동은 코비드19(코로나)의 유행 이후에 국내에서 급격히 인기를 끈 운동이기도 하다. 밀폐된 공간을 벗어나고 건강한 삶을 추구하고자 하는 모종의 흐름이, 우리에게 너무나도 익숙했던 운동들을 재발견하는 기회가 되지 않았을까 생각해본다. 무엇보다 이 세가지 운동은 특정 장소에 얹매이게 되거나, 반드시 짹을 맞춰야 하거나, 승부를 지어야 한다던가, 특수한 기술을 알고 있어야만 가능한 운동이 아니다. 적절하게 여건만 조성하면 당장 나 혼자서도 할 수 있는 운동이며 누군가에게 연연하거나 한 장소에 구애 받지 않아도 되는 것이다. 그러하다 보니 지금도 많은 이들이 사랑하고 행하는 야외활동 삼대장이라고 생각해본다.

다음은 내 경험을 기반으로 러닝과 등산에 대해 느낀 점을 나열해 보았다. 간간이 언급하는 것 이지만 나의 운동능력은 일반인(이 일반인이라는 범주는 신체를 움직이는데 무리가 없음 정도를 의미한다. 운동을 다루는 글이니 너른 양해 바란다.)이나 그 일반인이라는 개념보다 못 할 수도 있다. 어렸을 적부터 체육이라는 것과 거리가 멀었고 몸의 움직임으로 성취를 느껴본 적은 없던 사람이다. 고로 이 글을 읽을 당신이 “나 정도면 일반인의 범주이다”라고 생각한다면 마음 편히 읽어주면 되겠다.

러닝 : 상대적으로 편한 스포츠

앞서 이야기하였지만 나는 집 근처 중랑천에서 간간이 러닝을 한다. 주로 밤 시간대 달리는데, 10km구간을 페이스 약 5분 30초에서 6분대 사이로 뛰는 편이다. 장비라고 하기는 그렇지만 신발은 써코니 브랜드의 러닝화를 주로 착용하고 있다. 아디다스와 스케쳐스, 나이키 러닝화도 갖고는 있지만 어쩌다 보니 써코니만 계속 신게 되더라.

러닝을 시작하게 된 것은 지금으로부터 약 2년 전이다. 처음엔 다이어트만을 목표로 하였는데, 하다 보니 점점 재미를 느껴가며 나름 조금씩 공부와 자료를 찾아가며 하게 되었다. 한참 재미를 느꼈을 때에는 자전거보다 러닝을 더 많이 하기도 하였고, 꾸준히 주 당 두 번 내지 세 번 정도는 달렸던 것 같다. 초반에는 7~8km정도의 거리를 달렸다가 페이스가 조금씩 올라가며 10km까지 늘렸다. 작년 말부터 자전거에 집중을 하면서 러닝을 덜 뛰게 되었고, 지금은 간간이 10km정도 뛰는 것에 만족하고 있다.

러닝의 첫번째 장점으로 소개하는 것은, 어떻게 보면 러닝이라는 운동의 알파이자 오메가인 것이 바로 러너스 하이라는 것이다. 러너스 하이의 경우 사실 대부분의 운동에서도 비슷한 효과를 느낄 수 있지만, 이름처럼 러닝이라는 운동에서 그것을 제일 느끼기가 좋다. 러닝은 다른 운동들보다 몸에서 느껴지는 어떤 고통이 지속적이고 꾸준히 유지되기 때문이다. 약 30여분 내외를 적당히 높은 페이스를 유지하며 꾸준히 달릴 때, 뇌에서 도파민이 분비되어 어떤 즐거움처럼 느껴 지게끔 한다. 분명 호흡이 뛰고 온몸이 땀에 젖어 있음에도 이대로 쭉 달릴 수 있을 것 같은 가쁜함 이라고 할까. 이것은 보람이나 성취감과는 다른, 어디까지나 신체적인쾌락이라 할 수 있다.

운동으로 인해 몸이 어느 정도까지 치닫다가, 순간 고통이 잊혀지고 무아지경의 영역으로 빨

려 드는 감각을 느껴보았다면, 그 순간 운동은 더 이상 괴로운 것만이 아니게 된다. 들어보면 대부분의 러너들은 아마 러너스 하이를 느끼면서 러닝에 빠지게 되는 듯 하며, 실제로 그런 감각을 개운함과 연결하여 목표로 삼는 이들도 있다. 운동이라는 것이 가진 온전한 장점이자 동기부여가 된다. 매번 느끼는 것은 아니지만, 나 역시 이러한 감각을 통해 러닝에 재미를 들리기 시작하였으며, 이러한 감각이 올 때 운동 성과도 정말 높게 나온다.

러닝의 두번째 장점은 어디에서든 할 수 있다는 것이다. 길만 있으면 된다. 자전거도 비슷할 수는 있지만 최소한 도로와 인도 등을 구분하면서 달려야 하고 길의 상태에 영향을 받는 편이다. 그러나 러닝의 경우는 그 점에서 상대적으로 자유로워서 인간의 발이 닿을 수만 있다면, 가령 길 중간에 계단이 있거나 비포장 길이 있더라도 그것을 뚫고 나갈 수 있다.

또한 적어도 서울의 경우에는 운동장이나 트랙, 산책로, 경우에 따라 학교 운동장 등 대체로 러닝을 할 수 있는 구간들이 준비가 잘되어 있다. 앞서 말한 데로 내가 러닝을 하는 편인 중랑천만 하여도, 산책길은 물론 중간중간 몇 개의 트랙이 마련되어 있어 자기 취향대로 달리는 사람들을 많이 볼 수 있는데 그만큼 러닝을 하기 좋은 여건임을 느낀다. 하물며 꼭 이렇게 잘 설비된 길과 트랙이 있는 것이 아니라도, 동네 한바퀴 정도 도는 것은 가벼운 러닝으로도 충분하다.

다음으로 날씨에서 상대적으로 자유롭다는 것을 꼽을 수 있다. 나의 경우 자전거 타기보다 러닝을 많이 하게 될 때가 바로 장마철과 겨울철이다. 날씨에 관한 이야기는 자주 언급하기도 하지만, 인간이 야외활동을 장시간 하다 보면 날씨가 호락호락하지 않다는 것을 느끼게 된다. 환경의 변화는 신체 활동에 상당히 많은 영향을 미치는데, 일상에서는 작은 변화 정도로 느껴질 수 있는 것이 운동을 하다 보면 더욱 체감이 커지는 것이다. 다시 이것은 ‘신체가 움직이는 데 날씨로 인해 지장을 받느냐’와 ‘노상이 안전한가’와 직접적인 연관이 있다.

운동만이 아니라 일상에서도 ‘이렇게 입으면 너무 춥지 않을까?’ 혹은 ‘더워서 벗고 싶어지지 않을까?’ 이런 생각들을 자주 할 수 있다. 하물며 운동복일 경우 내 몸과 마음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더 민감한 요소이다. 특히나 등산이나 자전거의 경우 다이나믹한 환경(등산 : 고도로 인한 날씨 변화 / 자전거 : 속도로 인한 체감온도 변화)에 마주치기 때문에 복장에 대한 판단 착오가 지장을 주는 경우도 많다.

그러나 러닝은 상대적으로 두 스포츠보다 옷에 대한 부담이 적다. 운동 특성상 심박수를 빨리, 그것도 꾸준히 올려져 있으니 체온이 빠르게 높아진다. 즉 달리는 내내 덥다. 운동 경험이 덜한 일반인일수록 그 정도가 심할 것이다. 그러다 보니 러닝이라는 스포츠 자체가 운동용 속옷을 포함해 얇은 옷의 레이어를 2~3겹 정도 선에서 조정하는 정도이다. 또 한 겨울에도 땀을 내기 전 잠깐의 추위만 견딜 수 있다면, 운동용 티셔츠에 바람막이 정도로만 해도 덥다고 느낄 수도 있다.

또한 날씨의 변화는 곧 노상의 변화와도 같다. 이는 사고와 연결되는 요인이다. 비가 내렸거나 눈이 내려 노상이 젖어 있다면 자전거와 등산은 안전 때문에라도 불가하고, 굳이 해야겠다면 별도의 장비를 마련해야 할 것이다. 물론 러닝이라고 위험하지 않다는 것은 아니다. 그러나 본

인이 감내할 수 있는 선에서, 노상이 젖어 있는 정도는 크게 의식하지 않고 달릴 수 있다. 더욱 이 가벼운 러닝 정도라면 집 근처에서 많이 벗어나지 않을 확률이 크다. 만약 운동을 하다 급격히 비나 눈이 많이 내리는 상황이 벌어지면, 상대적으로 다른 운동보다 복귀에 부담이 덜하다.(그리고 때때로 안전하게 한다는 전제 하에 우중련은 재미있기도 하다.)

부담이 매우 덜하다, 이것이 네번째 장점이다. 앞서 말한 요인들 덕분에 입문하기도 쉽고 언제 어디서든 할 수도 있어 편한 데다, 금전적인 투자도 상대적으로 덜한 편이다. 비교군인 등산과 자전거는 소위 장비빨이라 하여서 관련된 장비들을 갖추는데 종류도 다양하고 비용도 높은 편이다. 그런 의미에서 현재가로 10~20만원 정도에 접할 수 있는 무난한 러닝화 정도면 사실상 준비는 끝났다고 볼 수도 있다. 그 외에 옵션 정도인 러닝 벨트나 테이프 등 전반적인 장비들이 몇 만원 정도면 구매할 수 있을 정도이다.

다섯 번째 장점, 관련된 정보가 풍부한 편이다. 관련된 서적은 물론 유튜브만 하여도 많은 입문용, 훈련용 정보들이 가득하다. 나의 경우에는 러닝에 입문하는 과정까지 런데이라는 어플의 도움을 많이 받았다. 이 어플의 가장 기본은 달리는 훈련을 시켜준다는 것으로, 올바른 자세를 유지시켜주고 입문자의 실력을 상승시켜줄 중장기 프로그램을 제공한다. 개인적으로는 멘탈케어의 역할도 크다고 생각하는데, 단점에서도 언급될 내용이지만 러닝은 멘탈의 영향을 상대적으로 많이 받는다. 나름 굳은 마음을 먹었다고 하더라도 무작정 30분, 1시간을 뛰라고 한다면 어느새 몸도 몸이지만 마음이 풀리면서 결국 달리기를 멈출 수도 있다. 그런 지점에서 어플을 사용하면 계속하여 마음이 지치지 않도록 응원해주고 지치지 않도록 관리해준다. 100m도 못 뛰던 내가, 심지어 혼자 달리는 러너임에도 지금의 수준까지 올 수 있었던 것은 어플과 관련 정보의 도움이 컸다.

정리하면 러닝의 장점은 다음과 같다. 첫째, 러너스 하이라는, 운동에 보람과 동기부여를 일으키는 상태를 접하기 제일 쉬운 편. 둘째, 길만 있으면 언제 어디서든 가능하다. 셋째, 다른 운동들에 비해 상대적으로 날씨의 영향을 덜 받는다. 넷째, 심리적이던 금전적이던 부담이 덜하다. 마지막 다섯째, 정보가 매우 다양하다. 이를 정리하면서 러닝이 가진 종합적인 장점을 생각해보면 결국에는 ‘시작하기가 편한 스포츠’라는 생각이 든다. 특히나 다른 운동들이 장비나 관련된 지식, 훈련 방법의 습득 등 머리 아픈 옵션들이 존재하는 것에 비해 러닝, 달리기라는 인간의 태고적 활동은 본능에 각인되어 있는 것이고 지금 당장이라도 시작할 수 있는 활동이기 때문이다.(물론 어느정도 자세나 방법의 이해가 있으면 더 좋지만)

하지만 장점이 있으면 당연히 단점이 있는 법. 아무리 몸에 좋은 운동이라고 해도 단점에 가까운 것은 분명 있다. (다음 편에 계속) 



영 ♀ 콩방

이 채 연

창작가 / 관심 받고 싶어 하는 주부

웹진 <지금 이시각>의 표지는 음식사진이다. 편집자님이 다녀온 맛집에서 먹은 메뉴가 표지이고, 뒷면에는 후기가 있다. 내 취향인 듯한 먹거리가 나왔을 때는 가고 싶고! 먹고 싶은! 마음이 굴뚝같아진다. 그런데 표지의 사진은 대부분 서울에 있는 맛집들이다. 충북에 사는 내가 가기에는 멀다. 역시 큰 도시 서울에는 사람도 많고, 맛집도 많다. 대도시에 비하면 작디작은 시골마을인 우리동네에는 맛집이 별로 없다. 사람이 적으니까 당연한 건가? 싶기도 하지만 말이다. 그래도 다행히 나를 즐겁게 해주는 맛집이 몇 개 있다. 철저히 주관과 취향으로 선택된 곳이다. 주변에 맛있는 빵집 하나만 있어도 삶의 질이 달라지고 급식이 맛있으면 회사와 학교가 좀 기대되기도 한다. 힘든 일이 있으면 맛있는 음식으로 마음을 위로하고, 생각이 복잡할 때면 인생 뭐 있나 먹고 행복해지면 그만이지 한다. 그래야 조금 더 살만해지고 견딜만해진다. 고마운 맛집! 그 중 하나를 소개한다.

영 ♀ 콩방

내가 살고 있는 진천에 위치한 카페다. 카페상호에 사장님의 존함이 들어가 있다. 주인의 이름을 걸고 하는 가게는 믿음직한 인상을 준다. 여기도 역시 그랬다. 드립 커피 전문점으로 손님이 몰리는 평일 점심시간을 제외하고 사장님 혼자서 운영하신다. 사장님은 중년의 남자분으로 커피에 대해서 진심이신 듯하고 커피에 대해 잘 알고 계신다. 그래서 손님들이 커피에 대해 물어보면 잘 알려주시는데, 나 같은 경우는 커피를 맛있다/맛없다로 구분하기 때문에 많이 질문하지는 않는다.

카푸치노나 바닐라라떼 같은 메뉴와 흔히 카페에서 볼 수 있는 쿠키와 빵은 없다. 그렇지만 향과 맛이 좋은 드립커피와 맛있는 초코렛이 있다. 그리고 직접 주변 농가에서 제철 농산물을 구입하셔서 만든 오미자 아이스나 귤차, 대추차, 생강차 등도 있다. 우리 아들의 핵은 오미자 아이스다. 건강하게 즐길 수 있는 메뉴 위주다. 어디선가 커피머신에서 에스프레소로 내린 커피보다 드립으로 내린 커피가 건강에는 좋다고 들었다.



그림1 영봉방에서, 15x15cm, 종이에 수채, 2022

위의 그림(그림1 _ 영봉방에서, 2022, 종이에 수채, 15x15cm)은 이 카페에서 있었던 일을 그린 것이다.

한 3년전쯤 아들은 커피원두와 물이 만나 부풀어 오르는 현상-일명 커피빵 현상을 과학교재에서보고 궁금해했다. 집에 있는 인스턴트 드립 커피로 실험해 보았다. 과학교재에서 본 것처럼 원두가 부풀어 오르지 않았다. 오히려 원두가 물을 흡수해 갈수록 납작 해지기만 했다. 실험은 실패. 아들이 무척 아쉬워했다. 아무래도 집에서 하는 실험은 여건이 제대로 갖춰지지 않은 상태로 하게 된다. 실험 잘 되지 않을 때가 많다. 이런 사실을 아들도 잘 알고 있었다. 그래서 아들이 실험이 잘 될 것이라는 기대는 안 할거라 생각했다. 그런데 생각보다 많이 아쉬워하는 아들을 보니, 다음에는 제대로 해내고야 말겠다는 오기가 생겼다. 실패한 이유를 찾아보았다. 신선한 커피로 해야 제대로 커피빵을 볼 수 있다고 한다. 그래… 실패의 원인은 신선한 커피! 우리집에는 오래 묵힌 인스턴트 드립 커피 밖에 없지. 그 후 카페에 갔을 때 사장님께서 드립커피를 만들고 계셨다. 앗 커피빵 발견. 이거 구나! 다음에 아들 데려와서 보여 주어야 겠다

고 다짐했다. 몇일 뒤 남편과 아들을 데리고 카페로 갔다. 일단 드립 커피를 주문하고, 커피 내리는 것을 봐도 괜찮은지 물어보았다. 사장님께서 훈쾌히 허락해 주셨고, 거기다 아들이 직접 커피를 내려 볼 수 있게 해 주셨다. 드디어 커피빵 봤다. 아들이 뿐듯해 했다. 그 표정이 오래도록 기억에 남는다. 커피 내리기 기세를 이어서 다른 메뉴 만드는 것도 했다. 우리가 주문한 것보다 많은 음료를 만들고, 먹었다. 원래 맛난 커피이지만 아들이 만들고 서빙도 해서 그런가 더 맛나게 느껴졌다. 나에게는 최고의 훈남 바리스타다.^__^

다음해 카페 개업 2주년 때 축하와 감사의 인사를 전하기 위해 앞장의 그림(그림1)을 선물했다. 이날의 느낌을 그림으로 남기고 싶기도 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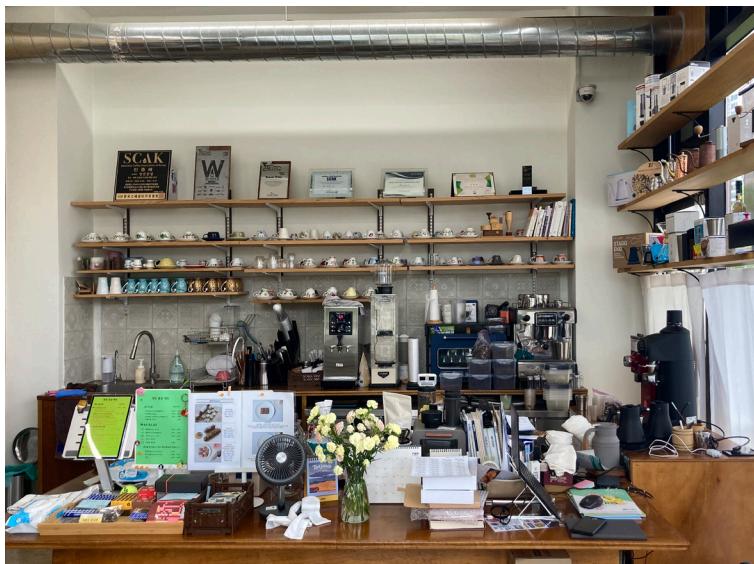


사진1 가게 내부

사진2 네이버 가게 소개 페이지에 내 그림이 있다. 기쁘다!



영 콩방 카페, 디저트

★4.82 · 방문자리뷰 73 · 블로그리뷰 12

↑
길찾기

♀
거리뷰

☆
저장

▷
공유

충북 진천군 덕산읍 대월1길 32 1층 101호 ▼ 지도

영업 중 · 18:00에 영업 종료 ▼

043-536-3253

정보 더보기 >



사진3

사진3 얼마 전 남편과 콜드브루 라떼를 먹었다. 이 카페는 외부음식을 가져가서 먹어도 된다. 집에 있는 간식을 가지고 종종 간다. 이날은 마트에서 구입한 과자 - 맛ㄷ산을 가져 갔고, 사장님께도 조금 드렸다.

맛ㄷ산은 도깨비 방망이 모양으로 겉면에 설탕 코팅 같은 것이 되어있고 땅콩분태가 뿌려져 있다. 땅콩이 비싸서 그런가 양에 비해 좀 가격이 좀 있는 편이다. 그래도 우리 가족 모두가 좋아해서 마트에서 행사상품으로 나와 있으면 사게 된다. 어릴 때는 한 봉지 정도는 와구 와구 뚝딱 다 먹었는데, 이제는 달고 딱딱해서 다 못 먹는다. 두세번에 나누어 먹게 된다.

이 날은 아이스 라떼와 맛ㄷ산을 먹었다. 차가운 커피와 단단한 과자를 같이 먹으니 과자가 더 딱딱하게 느껴졌다. 과자가 부드러워지는 따뜻한 커피와 먹을껄 그랬나 싶기도 했지만, 차가운 커피한모금 다 넘기고 과자를 먹으니 괜찮았다. 커피의 진하고 쓴맛 다음 과자의 달달하고 고소한 맛을 번갈아 먹는 거다. 난 과자와 빵을 더 맛있게 먹기 위해서 커피를 마시는 것 같다. 좋아하는 카페에 대한 글인데 과자이야기를 꽤 적었다. 언젠가는 커피 친구 과자와 빵을 주제로 써야 겠다는 생각이 듈다. 🐾



다시 여기에 간 힌

김 회진

노동자

D: 당장 죽더라도 그 권위는 아예 짓밟을 것이다. 시체의 가죽을 벗기는 일이 차라리 그것의 참된 가공일지 모른다.

A: 가죽은 무대를 덮어 잠시 모두를 가린다.

C: 은폐를 시도한 일이 있다. 표면을 인식하지 못하도록 나를 속이는 것이다.

B: 세상에 모두를 속이든 나 하나를 완벽히 속이든 비슷한 결과가 오니까.

D: 나는 대개 집에 있다. 좋아하는 사람을 만나거나, 보고 싶은 것에 다가가지 않을 때에는 적당히 할당된 공간에서 내 것을 해낸다.

B: 연기를 쌓아온 과정도 그러하다. 정을 담는 것에 겁을 내다가도 한 순간에 이끌린다.

A: 그리고는 편안하게, 불안하게.

C: 너무 피곤하거나 성가시다. 어른이 되기가 정말 힘들다. 아직 비릿한 향이 가시질 않는다.

D: 통과의례인 것을 알지만 솔직히 지난날들이 다 역겹다. 없는 고통을 만들어서 앓아누운 것은 아니었나.

B: 완치란 곧 독립이다.

C: 무슨 생각을 해도 가슴이 막 답답하다.



A: 열등감 없이 사는 것을 상상할 수는 없지만 꺼내어 드러내는 일은 항상 추하다.

D: 왜 그렇게 자격에 목을 매고 살았는지.

C: 결국엔 사랑인 것 같다. 의미나 이유를 찾기 힘든 상황에도 대개 사랑을 끼워 넣으면 적당히 맞아떨어졌다.

D: 그것이 정확히 일치하는 것은 아니래도 더 정교한 대안을 찾지 않고 만족할 만큼.

B: 언젠가는 엄마가 같이 죽자고 한 적도 있다.

D: 그토록 그 사람은 나를 사랑했다. 극도로 빈곤한 집의 가장이었고.

C: 그래서 자아를 절박하게 희생했다.

B: 인형을 쥔 나는 아무 말도 하지 못하고 소리 없이 웃었다.

D: 그런 척을 했다. 완벽한 표정을 지어야 했다.

A: 달리 어떤 반응을 해야 할지 알 수 없었다. 절벽에 매달려 있었다.

B: 질병이나 사고가 아닌 방법으로 죽음을 만질 수 있을 정도였다.

C: 그 이에게는 더 견디기 힘든 경사였을 것이다.

D: 우리는 그 죽음 이후에 어떤 삶을 얻었는가. 혹은 얻고 있는가. 조금씩 떨어지고 있다. 낯아지고 있다. 빠져나올 수 없는 위치로.

A: (가슴을 몇 번 치며) 이제야 나는 솔직하지 못함을 반성한다. 정의를 위반했다. 책임져야한다.

D: 가끔 거울을 보고 놀라기도 한다. 부쩍 늙고 비틀어졌다. 의식은 미약하며 오점 덩어리다. 고민하는 것에 권태를 느낀다.

C: 사용하는 언어들도 작위적이다. 적게 느끼고 많이 만들기 때문이다. 무뎌지는 예민함에 몸이 떨린다.



B: 공정한 체벌을 할당하여 기억을 만들어야 한다. 이유를 찾을 수 있는 행위만을 약속한다.
하지만 지금은 머리를 짚어도, 내 몸 같지 않다.

D: 나는 오히려 피해를 받으면서 쾌감을 느낀다.

A: 어디선가 채찍을 꺼내온 나는 설령 그것이 지옥일지라도 흘뿌려 허벅지를 묶는다. 머리채를 쥐어뜯는다.

B: (나열하듯) 빛나는, 뜨거운 정열, 먹물을 흘뿌린, 추상, 구성 이날까지, 작은, 물방울을 위해 존재하는 가장 가벼운 지휘봉.

D: (나열하듯) 즉, 행동, 노동, 모인 관객의 웅성거림, 이성의 움직임, 야만적 시선, 천성, 유아기로부터 성인에 이르는 과정.

A: (나열하듯 단호하게) 능력, 희룡이나 추행, 시선 같은 것, 지적

C: 치료의 보다 절박한 임무는 영적으로 한 단계 고양된 정신을 품도록 새로운 봄을 맞은 새싹에 고등한 연기 능력을 배양시키는 일이다.

D: 머리를 혀로 닦은 사람은 금을 목에 달고 나와 자만심에 가득 찬 목소리로 울대를 두드린다. 😺







create_sik님 외 18명이 좋아합니다
pigheadlab 김준범 개인전 <애실(愛室)> 전이 7월 13일부터 8월 3일까지 피그헤드랩에서 진행됩니다. 작가는 보편성과 특수성 사이의 사랑의 기억, 혹은 파편들과 그리움을 선보이고자 합니다. 사랑과 그리움. 어쩌면 너무 흔하고 뻔한 이야기일 수 있으나, 그것이 보편화되지 않은 어떤 지점에서 관객들에게 오브제로 선보여질 것입니다.
7월 13일(토), 아티스트 토크와 오프닝 행사를 갖습니다.
1) 7월 13일(토) 오후 3시 / 아티스트 토크 / 무아레서점(피그헤드랩 도보 약 5분 거리)
2) 7월 13일(토) 오후 5시 / 오프닝리셉션 / 피그헤드랩
#피그헤드랩 #김준범 #개인전 #애실 #문화 #예술
#전시 #장한평역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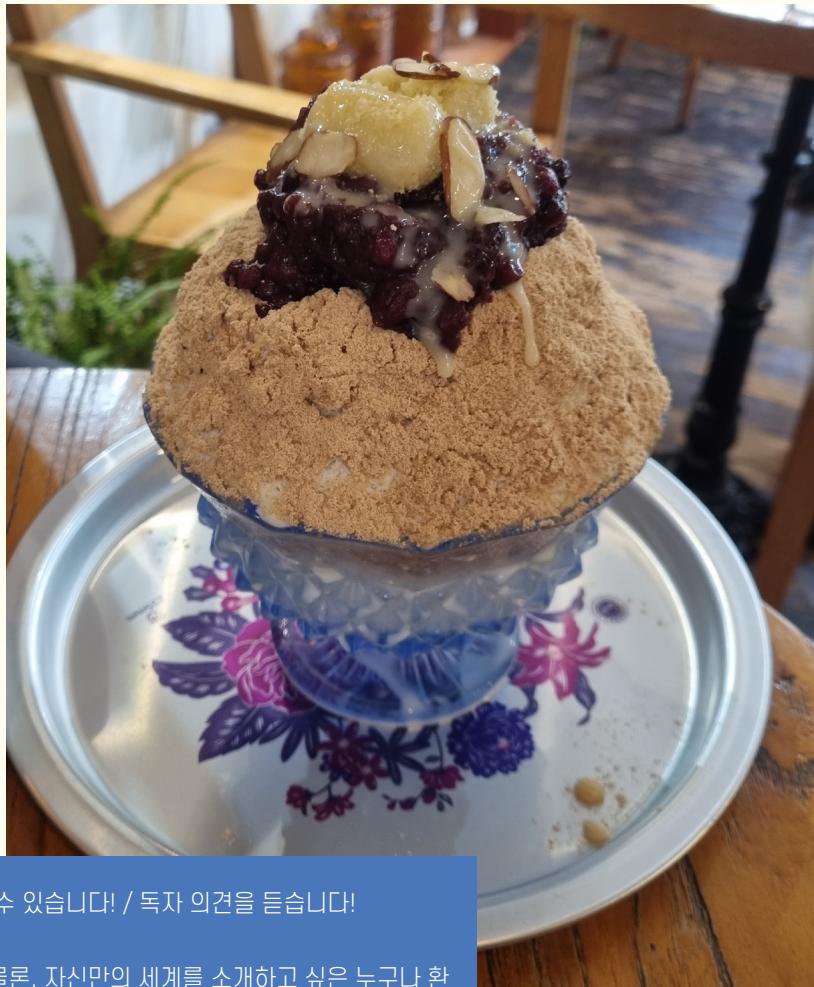


create_sik님 외 43명이 좋아합니다
pigheadlab 터닝포인트24 작가 포트폴리오 소개. 지난 월요일인 7월 1일, 피그헤드랩에서는 이번 터닝포인트 참여 작가 두분의 포트폴리오 발표가 있었습니다. "내 작업이 이렇다"라는 소개도 좋지만, 작업과 관련된 경험과 사람들을 이야기하고 그 안에서 다양한 생각들이 나오는 기회여서 참 좋았습니다.

월요일 저녁 진행이라 조금 걱정이 있었는데, 좋은 분들이 함께 해주셔서 정말 즐겁고 재밌는 자리가 되었습니다. 시간가는 줄 몰랐습니다. 사진협조

@create_sik
#피그헤드랩 #공모 #프로그램 #터닝포인트24 #원을미 #이미정 #포트폴리오 #커뮤니티 #장한평 #문화 #예술
#전시 #공간

7월 9일



당신도 참여할 수 있습니다! / 독자 의견을 듣습니다!

문화예술인은 물론, 자신만의 세계를 소개하고 싶은 누구나 환영합니다.

알리고 싶은 것, 하고 싶은 말, 자신의 작업물, 소개하고 싶은 것들. 편하게 남겨주시면 아카이브 하도록 하겠습니다.

A4 용지 10pt 기준 3페이지 정도, 혹은 그 이상 / 프로필 사진과 필명, 자기소개를 pigheadlab@gmail.com 메일 접수

<지금 이시각> 및 관련한 모든 콘텐츠 저작권은 피그헤드랩 (pigheadlab)과 편집자, 개별 콘텐츠 당 창작자에게 있습니다.
<지금 이시각>내 콘텐츠 사용, 문의 등은 우선하여 피그헤드랩에 연락을 주시길 바랍니다.

지금 이시각 TIME NOW_2024. 7, 스물다섯번째

발행/편집 : 오종원

발행처 : 피그헤드랩 [pigheadlab\(www.pighaedlab.com\)](http://www.pighaedlab.com)

웹사이트 내 PDF로 관람 가능

문의 : pigheadlab@gmail.com / 01082339033

이번 달 참여 필진 : 김희진, 마주, 오종원, 이채연, X, 줄리